

고창군, 아이돌봄 부담금 절반 지원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돌보미 방문해 보육·놀이·급식 서비스 내년부터 소득유형 관계없이 지원...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아이 돌봄 편하게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금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 군은 내년 사업예산으로 군비 1억4700만원을

확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인 경우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행’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745원에서 873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나행’은 4652원에서 2326원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행’은 9304원에서 4652원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초과 ‘라행’은 1만1630원에서 5815원으로 경감된다.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본인부담금

액이 커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형과 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은 고창군 자체사업임에 따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는 30명의 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본인 부담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서비스 이용이 부담됐던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전략작물직불금 53억 지급

2496 농가...동계작물 5500여ha 등 7800ha 대상

정읍시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농가는 2496명, 단기 작 면적은 동계작물 5500여ha, 하계작물 1400여 ha이며, 이모작 이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면적은 900여ha다. 직불금 총액은 53억원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동계에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하계에 벼 대신 가루쌀(본질미)·논콩·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 ‘논이모작 직불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동계작물 이외에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 추가돼 품목에 따라 당 50만원-48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했으며 대량검증과 이의신청 접수율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올해 잦은 집중호우로 하계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구제하고자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드립니다”

내년부터 16개 읍면 대상 시민 자긍심 높이기

남원시가 새해 1월부터 남원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에서 혼인의 연을 맺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국비를 활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청 민원과의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부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됐다. 보관함에는 ‘축 결혼, 남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담겼다. 남원에서는 해마다 200여 쌍이 혼인신고를 하고 있으며 국제혼인 등 다양한 혼인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또 혼인은 당사자 2인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 된다.



남원시 관계자가 남원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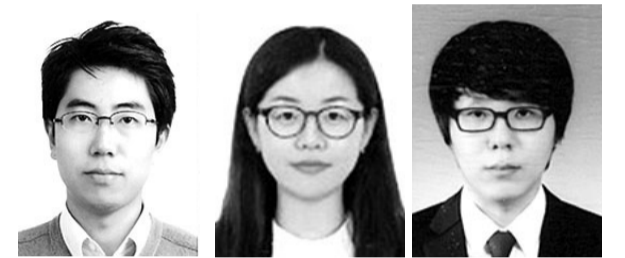
남원시 관계자는 “가족관계의 첫 출발인 혼인신고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신

속하고 정확하게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올해 빛낸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상반기 김진명, 하반기 박제준·유상은 주무관

정읍시가 2023년 총괄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태인면사무소 김진명 주무관 등 3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읍시는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직원과, 동료에게 추천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직원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박제준 주무관 유상은 주무관 김진명 주무관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에 가장 모범이 된 태인면 김진명 주무관을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또 하반기 친절공무원은 사회복지과 박제준 주무관과 노인장애인과 유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공익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 농업 업무를 맡으면서 농민들에게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친절 점수 이미지를 높였다. 박제준 주무관은 사회복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고통을 당사자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친절하게 응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상은 주무관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 간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서 내 친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4명 중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 가장 모범이 된 태인면 김진명 주무관을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시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근무 실적 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료 개발

전북교육청, 인권우호 문화 조성...도내 각급학교에 배포

전북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모두가 누릴 권리, 내가 실천한 책임’을 제작, 도내 각급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길라잡이인 이 교재는 학생

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교재는 ▲제1장 인권이 뭐예요 ▲제2장 학생인권 이해 ▲제3장 권리에 대한 이해, 책임에 대한 오해 ▲제4장 누리고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와 책임 등 총 4장으로 이뤄졌으며, 조

·중등 수업지도안까지 포함해 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존중과 수업, 의사소통, 자치와 참여, 소유물, 비폭력, 전자기기, 용모, 징계, 휴식 등 10가지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개발과 교육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청·군의회 더 넓어진다

제2청사 착공...5층 규모 2025년 6월 완공 목표

고창군청 제2청사인 의회청사가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군청 인근 부지에 군의회의 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군의회 청사 신축인 ‘제2청사 건립사업’은 군청 사무실의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민원인의 불편호소가 많아 민선 8기에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 6월 완공 목표인 군의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83.97㎡의 규모로 1층은 민원라운지, 2층과 3층에는 회의공간, 4층과 5층은 의원실 및 사무공간이 배치된다.

또 기존부지가 공영주차장임을 감안해 1층 일부로 필로티로 구성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공간 사이사이 미니정원을 꾸며 군민이 의회를 방문할 때 딱딱한 사무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의회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공간이 그동안 부족했던 사무공간으로 탈바꿈해 분산돼 있던 행정조직을 집중배치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